

<Brief Report>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사건확률 추론*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피해망상 환자 집단과 우울증 환자 집단, 정상인 통제집단의 긍정적, 부정적 미래사건에 대한 확률 추론과 사건 발생의 우연-의도성 추론을 알아보았다. 피해망상 환자 20명, 우울증 환자 20명, 정상인 통제집단 20명을 대상으로 14개의 긍정 사건과 14개의 부정 사건이 자신 및 타인에게 일어날 확률을 추정하도록 하였고, 각 사건 발생의 우연-의도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긍정 및 부정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을 다른 집단보다 높게 추정하였고, 타인에게 부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다른 집단보다 높게 추정하였다. 우울 집단의 경우 자신에게 긍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가장 낮게, 부정 사건 확률은 가장 높게 추정하였고, 부정 사건은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자신과 타인 모두 부정 사건보다 긍정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하였고, 긍정 사건은 타인보다 자신이, 부정 사건은 자신보다 타인이 많이 경험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우연-의도성 추론에서는 피해망상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부정사건 발생의 의도성을 높게 평정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피해망상, 우울증, 사건확률 추론, 우연-의도성 추론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훈 진 /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151-74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훈 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151-74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FAX: 02-880-6428 / E-mail: hjlee83@snu.ac.kr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며(Alicke, 1985; Codol, 1975), 자신의 미래가 다른 사람들보다 밝다고 예측한다(Hoorens, 1995; Larwood & Whittaker, 1977; Perloff, 1987; Weinstein, 1982, 1987). 이러한 편향을 “우월성에의 착각(illusory superiority)”, “자기호의적 편향(self-favoring biases)” 또는 “비현실적 낙관주의(unrealistic optimism)”라고 부른다(Hoorens, 1995). 이 현상들의 공통점은 지각된 자기-타인 괴리를 함축한다는 점이다. Hoorens(1995)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때 이러한 편향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긍정 사건에 대한 자기 우월적, 낙관적 편향은 자기 기만(self-deception), 부정 사건에 대한 자기 우월적, 낙관적 편향은 인상 관리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Kahneman, Slovic과 Tversky(1982)는 사람들이 미래 사건 확률을 예측할 때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사람들은 관련 사건이 얼마나 쉽게 마음에 떠오르느냐에 따라 확률을 추론하며, 따라서 사건관련 정보에 노출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확률 추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Gregory, Cialdini, & Carpenter, 1982; Lichtenstein, Slovic, Fischhoff, Layman, & Combs, 1978).

따라서 인상관리 동기 또는 자기기만 경향이 강하거나, 관련 사건에 대한 기억접근 가능성이 높다면 특정 사건에 대한 확률 추론에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설은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사건의 발생 확률을 과대 추정하였으며(이민규, 1993; Pietromonaco & Markus, 1985), 우울 기분 유도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Bower, 1983; Johnson & Tversky, 1983). Butler와 Mathews(1983, 1987)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뿐 아니라 불안 장애 환자와 불안 수준이 높은 대학생도 부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추정하였다. 자기-타인 비교에서도 우울 집단과 불안 집단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에게 부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함으로써 통제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와는 반대 경향을 나타냈다(Alloy & Ahrens, 1987; Butler & Mathews, 1983, 1987; Crocker, Alloy, & Kayne, 1988).

이렇듯 사건 확률 추론에 대한 임상집단 연구는 주로 우울 집단과 불안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편집증 집단, 즉 피해망상 집단의 사건확률 추론을 알아보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 부정적 타인개념, 극단적인 방어적 귀인 양식과 관련됨을 시사하고 있다(이명원, 1999; 이훈진, 2000a, 2000b; 이훈진, 원호택, 1998; 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Candido & Romney, 1990; Hingley, 1992;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6, 1997, 2000; Zigler & Glick, 1988). 편집증 집단은 또한 위협 자극에 대해 주의 및 기억편향을 보였다(Bentall, Kaney, & Bowen-Jones, 1995; Fear, Sharp, & Healy, 1996; Kaney, Wolfenden, Dewey, & Bentall, 1991).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 및 위협 자극에 대한 편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편집증 집단의 사건확률 추론은 가용성 휴리스틱 원리에 의해 우울 및 불안 집단과 마찬가지로 부정 사건 확률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강한 방어 귀인과 방어 동기를 고려하면 긍정 사건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반적인 자기참조적 추론 편향(Sims, 1988), 즉 자신과 무관한 사건조차도 자신과 관련되며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향에 따라 긍정, 부정 사건 모두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도 있다.

자기-타인 비교에서는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부정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가능

성이 있는데, 이는 편집 신념이 무력함과 상해 위협이 많은 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Fenigstein, 1994; Mirowsky & Ross, 1983), 자신과 유사한 환경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정 사건을 많이 경험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성 효과(consensus effect)”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과 유사한 태도, 신념,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Marks & Miller, 1987; Ross, Green, & House, 1977). 반면, 편집증의 특성이 자신을 부당한 피해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생각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정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Kaney, Bowen-Jones, Dewey와 Bentall(1997)은 피해망상 집단, 피해망상-우울 집단, 우울 집단, 통제 집단에게 긍정, 중성, 부정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빈도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평정하게 했다. 그 결과, 두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부정 사건의 발생 확률을 높게 평정했고, 우울 집단은 자신보다 남들에게 긍정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통제 집단은 자신보다 남들에게 부정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네 집단 모두 과거와 미래간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피해망상 집단의 사건 확률 추론이 우울 집단과 유사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사건 목록을 “누군가 나를 매력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한다” 등 단편적이고 발생빈도가 많은 대인관계 사건에 국한 시켰고, 사건발생가능성을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여 응답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건 목록에 빈도가 낮고 극단적인 사건을 포함시키고, 사건발생가능성을 확률(%)로 직접 추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사건이 우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하

는지,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평정하도록 하여 우울 집단 및 통제 집단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편집증의 핵심 특성 중 하나가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나 행동을 자신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행동으로 지각하는 편향이기 때문이다(Fenigstein, 1994; Sims,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건 목록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사건발생 가능성을 평정 척도가 아닌 확률로 추론하게 하였으며, 사건 발생의 우연 의도성을 평정하도록 하여 피해망상 집단의 사건 확률 추론을 연구하고, 우울 집단 및 통제 집단과 비교하였다. 우울 집단을 비교 집단에 포함하는 이유는 우울 집단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고, 편집증과 피해망상이 위장된 우울증이라는 Zigler와 Glick(1988)의 주장 이후로 많은 편집증 연구들이 우울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연구해 왔으며, 또한 본 연구와 유사한 Kaney 등(1997)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방 법

연구대상

피해망상이 주 증상인 환자 20명과 우울증 환자 20명, 그리고 이 두 환자 집단과 연령, 성별, 학력을 일치시킨 정상인 통제집단 2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는 서울 소재의 3개 대학병원 및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에서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세 집단 모두 남자 10명 여자 10명이었으며, 고졸이 3명, 대졸 또는 대재 이상이 17명씩이었다. 연령은 18~43세로, 평균 연령은 26.47세였다. 진단별로 보면 피해망상 집단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이 12명, 망상장애가 8명, 우울증 집단은 주요 우울장애 20명이었다.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사건 목록

긍정 사건		부정 사건	
무병장수	세계일주 여행	오랜 실직	노상강도를 당함
진정한 친구를 사귀	국가적 공로로 상을 받음	교통 사고를 당함	자연재해를 당함
특별한 능력을 발휘함	복권에 당첨됨	경제적 파탄	이혼
사회적 성공	행복한 결혼생활	자살기도	집이나 사무실의 화재
지상낙원을 찾음	좋은 직장에 취직	도둑을 맞음	사기나 모함에 걸림
중요한 시험에 합격함	사회적 명성을 얻음	암이나 에이즈에 걸림	도청이나 감시를 당함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음	부유한 생활	알코올 중독이 됨	가족의 사고나 중병

환자 집단은 주의치 또는 임상심리전문의의 평정 면접지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선발했는데, 피해망상 집단 중 환각이 두드러지거나 피해망상 이외의 복합 망상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고, 우울 집단의 경우 기분과 일치되는 망상을 보이는 경우는 포함되었다. 정상인 통제 집단은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받은 경험이 없고, 현재 정상적 적응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우울 및 편집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하였다. 우울 척도(한국판 BDI)의 경우 9점 미만인 사람을 편집 척도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에 근거해 24점 이하인 사람을 선발하였다.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 정상인 통제 집단의 편집척도 점수 평균은 각각 36.80($SD=10.85$), 24.42($SD=7.17$), 13.85($SD=5.76$)로 집단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F(2,56) = 38.99, p < .001$, 사후분석 결과 세 집단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우울 점수 평균은 각각 14.00($SD=10.99$), 25.90($SD=8.66$), 4.65($SD=2.11$)로 역시 집단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F(2,56) = 30.48, p < .001$, 사후분석 결과 세 집단이 서로 차이가 있었다.

도 구

편집 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제작해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증한 척도로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편집성향을 측정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제작하였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에 따르면,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α)는 .88~.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울척도로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대상 집단에 따라 내적 합치도(α) .78~.85였다.

생활사건 발생확률 추정 질문지

총 28문항의 긍정적(14문항), 부정적 생활사건(14문항)에 대해 미래에 자신 및 타인이 그 사건을 경험할 확률을 각각 %로 추정토록 하였다. 문항 순서는 긍정, 부정을 무작위로 섞어서 제시하였고, 추정의 순서는 각 문항별로 타인의 경우를 먼저 추정하고, 그 다음 자신의 경우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사건별로 그 사건이 보통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지 의도나 노력에 의해 일어나는지 상대적 기여도를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의도성 평정은 자기-타인 구분 없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측정하였다. 사건

목록은 이민규(1993)와 Hoorens(1995)를 참고해 선정하였다. 내적 합치도(α)는 긍정, 부정사건 모두 .88이었다.

결 과

집단 별 사건확률 추론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환자집단, 정상인 통제

집단의 사건 발생확률 추정치를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집단(3)과 사건 유형(긍정, 부정: 2), 대상 인물(자신, 타인: 2)의 3원 변량분석 결과(사건 유형과 대상 인물은 피험자 내 변인), 집단, 사건 유형, 대상 인물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F(2, 57) = 25.82, p < .001$. 2원 상호작용 효과는 집단과 사건 유형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했고, $F(2, 57) = 12.23, p < .001$, 사건 유형과 대상 인물의 2원 상호작용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F(1, 57) = 3.81, p < .056$. 주 효과

표 2.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환자집단, 정상인 통제 집단의 사건확률 및 의도성 추정치

사건 유형	피해망상 (n=20)	우울 (n=20)	통제 (n=20)	F
긍정사건 확률(자신)	41.62(16.06) _a	26.35(14.61) _b	41.65(9.64) _a	8.30 ^{***}
부정사건 확률(자신)	26.17(17.39) _a	29.29(14.42) _a	12.75(8.59) _b	6.44 ^{**}
긍정사건 확률(타인)	37.08(11.59)	30.48(13.43)	33.30(11.19)	1.50
부정사건 확률(타인)	29.72(11.38) _a	17.78(9.79) _b	22.38(11.34) _b	6.15 ^{**}
긍정사건 의도성	4.67(0.58)	4.60(0.88)	4.95(0.49)	1.53
부정사건 의도성	4.34(0.55) _a	3.03(0.72) _b	3.07(0.98) _b	18.56 ^{***}

* $p < .05$. ** $p < .01$. *** $p < .001$.

아래 첨자는 Scheffé 검증에 의한 집단 차를 나타냄 공유하는 철자가 없는 집단 간에는 $p < .05$ 수준 이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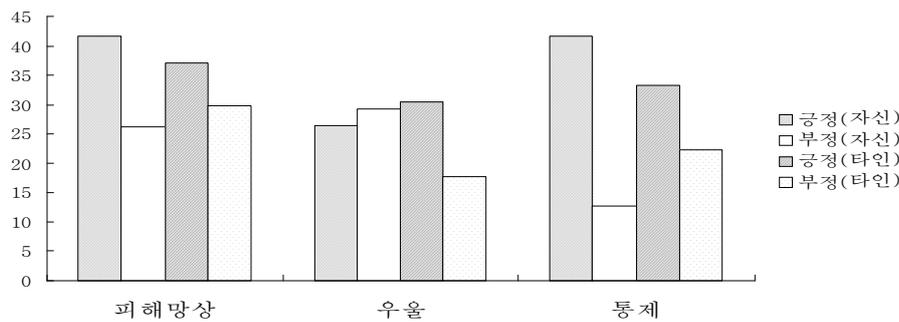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생활사건발생 확률 추정치

그림 1. 집단별 생활사건발생 확률 추정치

과는 집단의 주 효과와, $F(2, 57) = 3.54, p < .05$, 사건 유형의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F(1, 57) = 104.09, p < .001$.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표 2 참조, 자신에게 긍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피해망상 집단과 통제 집단이 우울증 집단보다 높게 추정했고, 자신에게 부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추정치는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즉, 피해망상 집단은 긍정, 부정 사건 모두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을 다른 집단보다 높게 추정하였다. 타인에게 긍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추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타인에게 부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추정에서는 피해망상 집단이 우울증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높게 추정하였다.

각 집단별로 사건 유형 및 자기-타인 차이를 비교한 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자신과 타인 모두 부정 사건보다 긍정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했고, $t(19) = 4.05, p < .001, t(19) = 4.05, p < .001$, 긍정 및 부정 사건 모두에서 자기-타인 간 차이는 없었다. 우울증 집단은 자신의 경우 긍정 사건과 부정 사건 확률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타인의 경우 부정 사건보다 긍정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하였고, $t(19) = 5.68, p < .001$, 부정 사건은 타인보다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t(19) = 3.11, p < .01$. 통제 집단의 경우, 자신과 타인 모두 부정사건보다 긍정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했고, $t(19) = 14.10, p < .001, t(19) = 4.32, p < .001$, 긍정 사건은 타인보다 자신이, 부정 사건은 자신보다 타인이 많이 경험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t(19) = 4.15, p < .001, t(19) = 12.15, p < .001$.

사건 발생의 우연-의도성 추론

피해망상, 우울, 통제집단이 평정한 사건 발생

의 우연-의도성 평정치를 표 2 하단부에 제시하였다. 집단(3)과 사건 유형(긍정, 부정: 2)의 2원 변량분석 결과(사건 유형은 피험자 내 변인), 집단과 사건 유형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F(2, 57) = 13.89, p < .001$. 주 효과 검증에서는, 집단의 주 효과와, $F(2, 57) = 8.98, p < .001$, 사건 유형의 주 효과가 모두 유의미했다, $F(1, 57) = 98.52, p < .001$.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긍정 사건의 의도성 추정에서는 집단 차이가 없었으나, 부정 사건의 경우 피해망상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의도성을 높게 평정하였다. 각 집단별로 사건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세 집단 모두 긍정 사건이 부정 사건보다 의도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t(19) = 2.89, p < .01, t(19) = 5.51, p < .001, t(19) = 8.5,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증 집단, 정상인 통제 집단의 사건발생 확률 추정과 사건 발생의 우연-의도성 추론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자신에게 긍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우울 집단보다 높게, 부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통제 집단보다 높게 추정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다른 두 집단보다 높게 추정하였다. 반면, 우울 집단의 경우 자신에게 긍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가장 낮게, 부정 사건 확률은 가장 높게 추정하였고, 부정사건 경험 확률은 타인보다 자신이 더 높다고 추정하였으며, 다른 사람은 부정 사건보다는 긍정 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자신과 타인 모두 부정 사건보다 긍정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고, 부정 사건의 경험 확률을 다른 집단보다 낮게 추정하였다. 또한 긍정 사건은 타인보다 자신이, 부정 사건은 자신보다 타인이 많이 경험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우연-의도성 추론에서는 피해망상 집단이 우울증 집단 및 통제 집단에 비해 부정 사건의 의도성을 높게 추정하였다.

따라서 피해망상 집단은 자신에게 긍정 사건과 부정 사건 모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론함으로써 일반적인 자기참조적 편향(Sims, 1988)을 나타냈다. 자기-타인 비교에서는 통제 집단이 긍정 사건은 타인보다 자신이, 부정 사건은 자신보다 타인이 많이 경험할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전형적인 “자기호의적 편향” 또는 “우월성에의 착각”(Hoorens, 1995)을 보인 것과 달리 피해망상 집단은 자기-타인 간 차이가 없는 “합의성 효과”(Marks & Miller, 1987; Ross, Green, & House, 1977)”를 보였다. 우울 집단의 경우, 선행 연구들(이민규, 1993; Alloy & Ahrens, 1987; Butler & Mathews, 1983, 1987; Crocker, Alloy, & Kayne, 1988; Pietromonaco & Markus, 1985)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긍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가장 낮게 추정하였고, 타인보다 자신에게 부정 사건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피해망상 집단이 자기-타인 비교에서 합의성 효과를 나타낸 이유 중 하나는 Fenigstein(1994), Mirowsky 와 Ross(1983)의 가정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유사하게 부정적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고,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피해망상 집단이 현재 치료 중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을 동료 환자로 생각하고 자신과 유사한 처지에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추가 검증이 요망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우울 집단과 차이가 없었던 Kancy 등(1997)의 결과와 다른 것인데, 이는

본 연구와 Kancy 등(1997)의 연구가 사건 목록과 확률 추정 방식에서 달랐기 때문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방법이 두 집단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더 유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통제 집단과 우울 집단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확증함과 동시에 피해망상 집단과 우울 집단의 차이를 밝혀냈다는 점, 그리고 우연-의도성 평정을 통해 피해망상 집단의 독특한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선행 연구와의 차이가 단순히 사건 목록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의도성 평정의 경우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아 의도성 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 타인 간 차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른 변인이 피해망상 및 우울의 원인보다는 현상에 가까우며, 특히 “사기나 모함에 걸림”, “도청이나 감시를 당함”, “자살 기도” 등의 항목은 편집증 및 우울증의 증상 자체에 가까워 단순히 문항 내용에 따른 차이를 반영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항목들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도 집단 차이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문항 내용 때문에 집단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해망상과 우울의 원인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단 연구가 필요하며,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반복 검증도 요망된다.

참고문헌

- 이명원 (1999). 자기개념의 위협에 따른 편집성향자들의 주의편향 및 귀인양식. 미발표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민규 (1993).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 82-93.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훈진 (2000a). 편집 집단과 우울 집단의 사회적 추론: 맥락정보 사용과 귀인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39-451.
- 이훈진 (2000b). 편집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주의 및 기억편향. *심리과학*, 9(1), 77-99.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 (1998). 편집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05-125.
- Alicke, M. D. (1985). Global self-evaluation as determined by the desi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621-1630.
- Alloy, L. B., & Ahrens, A. H. (1987). Depression and pessimism for the future: Biased use of statistically relevant information in predictions for self an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66-378.
- Bentall, R. P., Kaney, S., & Bowen-Jones, K. (1995). Persecutory delusions and recall of threat-related, depression-related and neutral word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445-457.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Bower, G. H. (1983). Affect and cognit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36, 129-148.
- Butler, G., & Mathews, A. (1983). Cognitive processes in anxiety. *Advances in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5, 51-62.
- Butler, G., & Mathews, A. (1987). Anticipatory anxiety and risk percep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551-565.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Codol, J. P. (1975). On the so-called 'superior conformity of the self' behavior: Twenty experimental investig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457-501.
- Crocker, J., Alloy, L. B., & Kayne, T. N. (1988). Attributional style, depression, and perceptions of consensus for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40-846.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Fenigstein, A. (1994). Paranoia. In V. S. Ramachandran (Eds.),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 3). San Diego: Academic Press.
- Gregory, W. L., Cialdini, R. B., & Carpenter, K. M. (1982). Self-relevant scenarios as mediators in likelihood estimates and compliance: Does imagining make it s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89-99.
- Hingley, S. M. (1992). Psychological theories of delusional thinking: In search of integratio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47-356.
- Hoorens, V. (1995). Self-favoring biases, self-presentation, and the self-other asymmetry in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63(4), 793-817.
- Johnson, E. J., & Tversky, A. (1983). Affect, Generalization, and the perception of risk.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 20-34.
- Kahneman, D., Slovic, P. & Tversky, A. (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ey, S., Bowen-Jones, K., Dewey, M. E., & Bentall, R. P. (1997). Two predictions about paranoid ideation: Deluded, depressed and normal participants' subjective frequency and consensus judgments for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even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349-364.
- Kaney, S., Wolfenden, M., Dewey, M. E.,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recall of threatening proposi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85-87.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7).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41-345.
- Kinderman, P., & Bentall, R. P. (2000). Self-discrepancies and causal attributions: Studies of hypothesized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255-273.
- Larwood, L., & Whittaker, W. (1977). Managerial myopia: Self-serving biases in organizational plan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194-198.
- Lichtenstein, S., Slovic, P., Fishoff, B., Layman, M., & Combs, B. (1978). Judged frequency of lethal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Learning and Memory*, 4, 551-578.
- Marks, G., & Miller, N. (1987). Ten years of research on the false-consensus effec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2, 72-90.
- Mirowsky, J., & Ross, C. E. (1983). Paranoia and the structure of powerlessn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228-239.
- Perloff, L. S. (1987). Social comparison and illusions of invulnerability to negative life events. In C. R. Snyder & C. Ford (Eds.), *Coping with negative life events: Clin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217-242). New York: Plenum.
- Pietromonaco, P. R., & Markus, H. (1985). The nature of negative thoughts in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799-807.
- Ross, L., Green, D., & House, P. (1977). The 'false-consensus effect': An egocentric bias in social perception and attribution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279-301.
- Sims, A. (1988). *Symptom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descriptive psychopathology*. London: Baillière Tindall.
- Weinstein, N. D. (1982). Unrealistic optimism about susceptibility to health problem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5, 441-460.
- Weinstein, N. D. (1987). Unrealistic optimism about susceptibility to health problems: Conclusions from a community-wide sample. *Journal of*

- Behavioral Medicine*, 10, 481-500.
- Zigler, E., & Glick, M. (1988). Is paranoid schizophrenia really camouflage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84-290.

원 고 접 수 일 : 2003. 7.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28
게 재 결 정 일 : 2003. 10. 21

<Brief Report>

Probabilistic Judgments in Persecutory Deluded and Depressed Patients

Hoon-J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babilistic judgments and the accidentality-intentionality judgments for positive and negative future events in persecutory deluded, depressed, and normal subjects. Twenty persecutory deluded patients, 20 depressed patients, and 20 normal controls were asked to rate the probability and the accidentality-intentionality for 14 positive and 14 negative events. The persecutory deluded patients rated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as occurring more frequently to themselves in comparisons to the depressed patients or the normal controls. They rated negative events as occurring more frequently to others in comparisons to the depressed and the normal controls. The depressed patients rated positive events as occurring less frequently and negative events as occurring more frequently in comparisons to the persecutory deluded or the normal controls. They rated negative events as occurring more frequently to themselves in comparison to the others. The normal controls rated positive events as occurring more frequently than negative events. They rated positive events as occurring more frequently to themselves in comparison to the others, and rated negative events as occurring less frequently to themselves in comparison to the others. In accidentality-intentionality judgments, the persecutory deluded patients rated negative events as occurring more intentionally in comparisons to the depressed and the normal controls.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ersecutory delusion, depression, probabilistic judgments, accidentality-intentionality judgment.